

1. 가족 중에 제 2형 당뇨병환자가 있을 때(부모, 형제, 자매)
2. 비만한 사람(표준체중보다 20%이상 초과 혹은 체질량 지수 27kg/m² 이상인 경우)
3.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4kg 이상 체중의 거대아를 출산한 여성
4. 공복혈당장애 또는 내당능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5. 고혈압 환자(140/90mmHg 이상)
6. 고지혈증 환자(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35mg/dl 이하 또는 중성지방 250mg/dl 이상)



당뇨병, 현재와 미래

열명 중 한명이 당뇨병인 시대 멀지 않았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당뇨병

세계적으로 당뇨병환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당뇨병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07년 2억4000만명이던 세계 당뇨병환자가 2025년에는 3억 8000만명으로 급증하며, 그중 60% 이상이 아시아 환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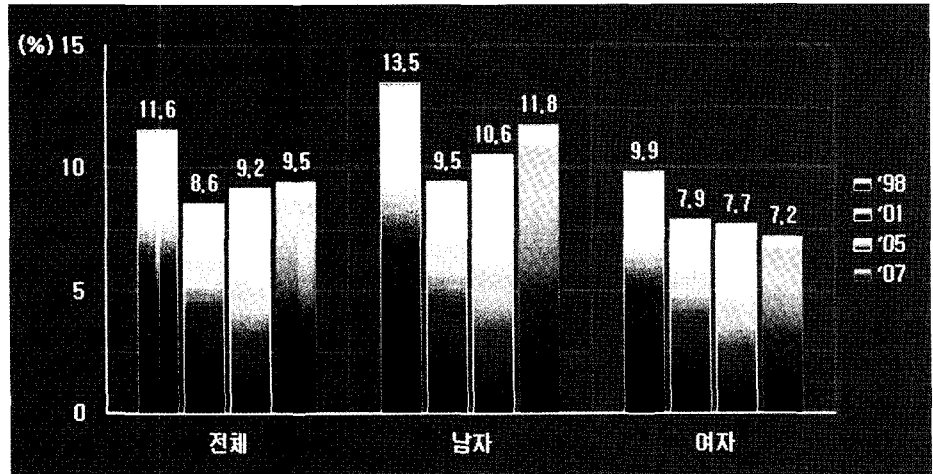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에는 1% 미만이던 당뇨병 유병률이 1980년대 말에는 약 3%까지 증가해, 2007년에는 9.5%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 사망원인으로 당뇨병이 4위로 상승했으며, 당뇨병 총 진료비는 2005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조사된 당뇨병 유병률

지금과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멀지 않아 당뇨대란이 찾아온다. 2010년에 당뇨병환자가 351만명으로 늘어

나 전 인구의 7.08%를 차지하고, 2029년에는 455만명으로 8.97%로 증가하며, 2030년에는 545만명 가량으로 전인구의 10.85%가 된다.

이는 한국인 10명중 1명이 당뇨병에 걸리는 것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처 : 국민건강양양조사(만 30세 이상)

한국형 당뇨병의 특징

❖ 마른 당뇨병환자가 대부분

서양에서는 70~80%가 정도가 비만한 당뇨병환자로, 주로 비만한 사람이 당뇨병에 많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30~40% 정도에 불과하며, 절반이상이 정상체중이거나 마른 체형이다.

❖ 1형도 2형도 아닌 1.5형 당뇨병

한국인의 경우, 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서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혈당조절을 하지만, 몇년 후에는 베타세포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소실되어 인슐린을 사용해야 혈당이 조절되는 제 1형 당뇨병의 증상을 보인다.

❖ 젊은 당뇨병환자의 증가

최근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 전체 당뇨병환자 중 40세 이하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 41%(남자 49%, 여자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결과 한국의 30대와 40대의 당뇨유병률은 각각 4%와 6%로 이는 서양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당뇨병관리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8~10% 정도가 당뇨병환자로, 약 500만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자신이 당뇨병에 걸려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30~50%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뇨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어도 상당수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해서 치료받고 있다.

아직까지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당뇨병치료와 예방에 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